# 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지역 경제 활성화

**학·협회·기업 유치설명 교류회 지속**
**초청 팸투어 등 전략적 홍보 활동**
**2024년 42만여명 방문객 발걸음**
**이달 중 기업행사·국제회의 열려**

여수시가 전략적 마케팅으로 대규모 국내외 마이스(MICE) 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마이스(MICE)는 기업 회의, 포상 관광, 국제 회의, 전시 박람회와 이벤트의 영문 약자로 국제회의와 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 중으로는 2025 해성디에스 비전캠프와 태국 방콕 의료서비스부 공동발전 세미나 등의 기업행사와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다.

해성디에스는 다음달 27일까지 12회에 걸쳐 약 1450명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이며 소통 워크숍, 관광지 시찰, 여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태국 의료단체 40여명은 16일부터 21일까지 여수에 머무르게 되며 여수애양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와 접견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인 마이스(MICE) 행사 유치를 위해 학·협회,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치설명회 및 교류회, 초청 팸투어, 국제박람회 참가 등 전략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 올해도 크고 작은 마이스(MICE) 행사들이 다수 예정돼 있다"며 "여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선보여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명을 유치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약 1475억원으로 추정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 구례군 간전면 백운복지관 문 열어
**농업인상담소·공동체 공간 등**

구례군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이 될 간전면 백운복지관이 개관했다.

13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개관식은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장, 이현창 도의원, 이장단, 사회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구례군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2022년 12월 백운복지관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공사에는 총사업비 28억원이 투입됐으며 복지관은 연면적 568.79㎡, 지상 2층 규모로 세워졌다.

1층에는 농업인상담소, 공동체 공간, 회의실, 다목적실이 설치됐으며 2층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실, 취미실 등이 들어섰다.

백운복지관은 농업인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백운복지관 개관은 간전면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결과로 지역 주민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
**구례군, 10% 감면 혜택**

구례군은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3일 구례군에 다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연 2회(매년 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0% 감경된 금액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인터넷 위택스나 구례군 환경과(061-780-2154, 2146)로 신청 후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고지는 취소되며, 감면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구례군, 현장 지원 전담반 운영
**대설·한파 등 재해 상황 대비**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겨울철 대설과 한파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도 전담반(기술보급과 3팀)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동계작물(맥류, 마늘, 양파 등) 재배 농가와 시설작물(오이, 감자 등)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사전 점검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보수 및 자동화 시설 작동 확인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제설 장비 확보 △보온시설 장비 점검 △내재해형 규격시설 확인 등 특별 점검이 진행된다.

노지 작물의 경우 배수로 사전 점검과 토양 피복을 통해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이상저온과 폭설로 인해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순천시 제공

## 여수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한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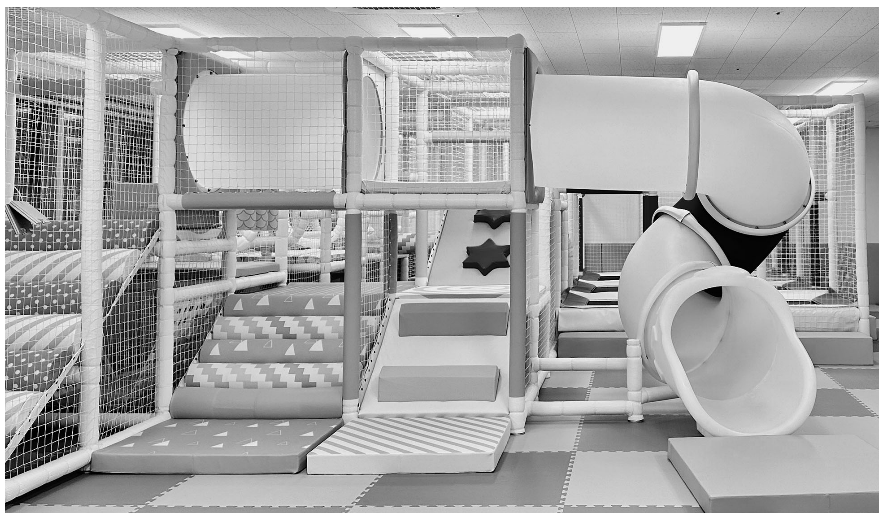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 구례군, 최초 '공공키즈놀이터' 운영



구례군이 14일부터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1층(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가소통실에서 공공키즈놀이터를 운영한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14일부터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1층(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6) 가소통실에서 공공키즈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키즈놀이터는 아동이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한 실내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설치 공사와 안전 검사를 모두 완료한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공간, 휴게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다.

앞서 구례군은 지난해 8월 개관한 구례행복가족복합센터 내에 키즈놀이터 설치 공사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말 놀이터 설치 공사, 안전검사 등을 완료했다.

이용 대상은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아동으로,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 입장해야 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3회(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회당 2시간) 운영한다. 구례군은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 2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공키즈놀이터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광양시, '노동안전지킴이' 모집
**건설 현장 등 산업재해 예방**

광양시는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 등 안전 수칙 미준수 산업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계도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산업재해 예방 추진체계 마련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6명이며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노동부 지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만 지원 자격이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7일까지이며, 광양시청 투자경제과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거나 이메일(dbsgur1022@korea.kr)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이 이뤄지고 최종 선정 결과는 광양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노동안전지킴이는 위촉일부터 올해 말까지 5~50인 미만의 건설업·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안전 재해 예방조치 위반사항 등을 점검·계도하는 역할을 2인 1조로 수행하게 된다.

정해종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안전 문화 홍보를 강화해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